II. 학교 미세먼지 문제 이해하기

1. 학교 공간의 특수성

일반적인 건물과는 달리, 학교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으며,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받는 장소입니다. 학교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인에 비하여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민감군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생활 (면적당 활동하는 학생 수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4배 많음)
- 미술실, 과학실 등 다양한 목적의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나, 체육과 같이 외부에서 진행되는 수업 등 수업의 형태에 따라 수업 중과 수업 이후에 다양한 실내 오염물질이 발생
- 대부분의 학교에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있어 외부 환경영향에 취약함
- 다양한 난방, 환기, 냉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유지·관리 부담이 있음
- 통학버스의 디젤 배출 문제, 등·하교 시간에 학생 및 교직원의 차량이 같은 장소에 집중
- 흡연, 난방기구 연소, 조리와 같은 실내 발생원이 없어 주변 대기오염도와 재실자의 활동 형태의 영향을 받음?

• 학교환경 특성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학교환경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교 유형, 지역, 외부환경, 내부환경, 학교 건축 현황, 건물 인증 현황, 기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는 크게 편복도(복도의 한쪽에만 교실이 있는 경우), 중복도(복도의 양쪽에 교실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실의 외기 노출수준 차이에 따른 기밀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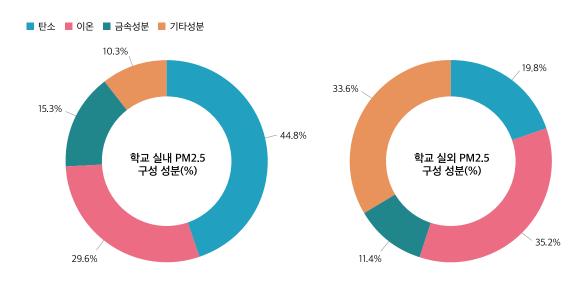
주방과 화장실의 배기구, 콘센트를 모두 밀봉한 상태에서 건물에 바람을 불어넣어 실내외 압력차를 이용하여 건물의 기밀 성능을 측정하는 Blower-door 측정법을 이용해 경기도 내 22개 학교 교실, 체육관 기밀성능 비교측정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예상한 것과는 달리 건물연령과 기밀성능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2011부터 2015년 까지 실시한 노후학교 창호 개선사업으로 창호의 기밀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교실 출입문의 기밀상태 불량 및 천장 마감 불량 등 유지보수 문제가 기밀성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 부유량은 증가되는 미세먼지(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활동함에 따른 생성되는 미세먼지와 공기 중으로 날리는 미세먼지)와 감소되는 미세먼지(중력에 따라 바닥에 떨어지는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작동에 따라 저감되는 미세먼지)를 고려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 학교 미세먼지 구성 성분(학교 실내외 화학성분 특성 조사)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학교(경기도 12개교, 전북 3개교 등 총 27개교)의 실내와 실외 PM_{2.5} 성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학교 실내의 PM_{2.5} 구성 성분은 탄소(44.8%), 이온(29.6%), 금속성분(15.3%), 기타성분 (10.3%)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 외부의 PM_{2.5} 구성 성분은 이온(35.2%), 기타성분(33.6%), 탄소(19.8%), 금속 성분(11.4%)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13> 학교 실·내외 PM2.5 구성 성분 분석 결과

• 침기/환기 특성 규명

건물의 실내는 환기, 침기 등에 의해 외부와 끊임없이 공기가 교환됩니다. 여기서 미세먼지는 건물의 외피나 창호의 틈새, 개구부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며, 실내가 받는 미세먼지 영향은 먼지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⁸⁾.

연구원에서 Blower-door 측정법을 이용하여 52개 교실의 기밀성능을 측정한 결과, 50Pa 조건에서 기밀성능은 평균 23.3h⁻¹⁹⁾ (6.42~46.84h⁻¹)이었습니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 (KIAEBS C-1: 2013)이 5.0 h-1 이하인 것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학교의 기밀성능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실 인원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와 침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이 재실하고 있는 수업시간 중 외기의 침입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미세먼지 유입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⁸⁾ Liu, D. L., & Nazaroff, W. W. (2001). Modeling pollutant penetration across building envelopes. Atmospheric Environment, 35(26), 4451-4462.

⁹⁾ 환기횟수(공기교환횟수): 환기를 위해 들어온 공기 부피/해당 공간 전체 부피 = 환기를 위해 들어온 부피를 전체 공간 부피로 나눠서 한 시간동안 몇 번 교환되었는지 알아보는 도구, 숫자가 클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막혀있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 외기영향 요소 추적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건물 틈새 또는 창호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데, 침기량과 환기유형(자연환기, 기계환기)에 따라 실내로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전달은 미세먼지 크기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크기가 1년 작은 극초미세먼지는 주로 외부 공기의 의도하지 않은 실내 유입으로 인해 전달되고, 2.5~10년에의 미세먼지는 학생활동에 의해 다시 떠오르거나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PM1.0은 외부 농도에 비하여 실내에서 농도가 낮으며, PM10은 실내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농도에 비하여 실내에서 농도가 높고, PM2.5는 두 항목의 중간 정도 경향을 보입니다.

_	_				 		
1 11	E1	충나기	ᄪᆕᅜ	TTL 2	미세먼지	ᅡ누ㄷ	OI축t
1 10	- 01	710	TISTU		 ロレベルティベ		2, 9,

구분	PM ₁₀	PM _{2.5}	PM _{1.0}	
청정기 가동	매우 민감하게 감소		큰 영향없음	
창문개방	외기에 의해 유입		다소 영향	
학생활동 (수업)	큰 영향없음	4	활동량에 비례	
학생활동 (쉬는시간)	침기량 증가에 따라 작게 증가	*	활동량 증가에 따라 매우 민감하고 크게 증가	
외기 농도	주로 외기농도보다 낮음 외기농도에 영향 받음		주로 외기농도보다 높음	
유추 정보	침입효과		학생활동에 의해 다시 흩어지거나 생성	

실내·외 농도의 관계는 국내 연구에서 제시한 실내·외 농도비 (Indoor/Outdoor ratio)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¹⁰.

I/O ratio = 1 : 실내·외 농도가 서로 균질하다는 것을 의미

I/O ratio < 1 : 실외 농도가 더 높아, 실내로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음

I/O ratio > 1 : 실내농도가 더 높고, 실내에 미세먼지 발생원의 영향이 있음

I/O ratio가 1에 가까울수록, 실내·외 농도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I/O ratio가 1보다 낮으면 실외 농도가 더 높아서 실내로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I/O ratio가 1보다 높으면 실내농도가 더 높고, 실내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¹⁰⁾ 강지원. (2020). 실내 외 농도비 (I/O ratio) 에 기반한 주변환경과 실내 미세먼지 농도분포 특성: 선행연구 리뷰와 여름철 부산과 평택 초등학교에서의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대한워격탐사학회지. 36(6). 1691-1710.

실내 재실인원의 활동, 계절, 건물용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PM10와 PM2.5의 I/O ratio를 비교한 결과, PM10의 I/O ratio가 PM2.5보다 높았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PM10과 PM2.5 모두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나, PM10은 PM2.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M10의 I/O ratio가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에서 1을 초과함을 고려하면 실내 PM10은 신체 활동으로 인해 공기 중에 다시 흩어지면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